



여우주연상 양쯔충

작품상·감독상·여우주연상·각본상·여우조연상·남우조연상·편집상

‘에브리씽’ 오스카 7관왕

미국 이민 가족이 겪는 세대 갈등 SF 장르
양쯔충, 아시아 배우 최초 여우주연상 수상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에 이변은 없었다. 이번 오스카 무대에서 10개 부문·11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하 에브리씽)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문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에브리씽’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각본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편집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4관왕을 계기로 오스카 무대에서 두드러진 아시아권 영화의 강세가 올해는 ‘에브리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영화는 미국 이민 1세인 에벌린(양쯔충 분)이 다중 우주를 넘나들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이 겪는 현실적 고충과 세대 갈등을 SF 장르로 풀어내며 호평받았다.

‘에브리씽’의 프로듀서 조너선 왕은 작품상 트로피를 받고서 “정말 많은 이민자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며 “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수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그 이야기를 같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쯔충은 아시아계 배우 처음으로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기록을 세웠다.

양쯔충은 “제 어머니께, 세계의 어머니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 그분들이 바로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아시아권의 문화적 정서가 들어간 작품, 그런 정서가 주는 새로움이 더해져서 아카데미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우주연상은 ‘더 웨일’에서 272kg의 거구를 연

기한 브랜던 프레이저가 차지했다. 그는 과거 영화 ‘미이라’ 시리즈로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으나, 촬영 중 부상과 수술, 할리우드 고위급 인사의 성추행 피해, 이혼 등으로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는 복귀작이나 마찬가지로 ‘더 웨일’로 화려한 부활을 알리게 됐다. 프레이저는 호명 뒤 무대에 올라 울먹이며 “아카데미 측에 이 영예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런 애러노프스키 감독에게도 ‘더 웨일’에 합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감격해했다.

남우조연상의 주인공도 ‘에브리씽’이었다. 남우조연상은 ‘에브리씽’에서 에벌린의 남편 웨이먼드 역을 연기한 키 호이 판이, 여우조연상은 국제형 직역 디어드리로 분한 제이미 리 커티스가 수상했다.

키 호이 판은 수상 무대에서 “엄마가 74살입니다. 집에서 시상을 보고 있다”면서 “엄마 저 오스카상 닮았어요”라고 크게 환호했다. 올해 오스카에서는 넷플릭스의 반전영화 ‘서부



남우주연상 브랜던 프레이저

전선 이상 없다’(이하 서부전선)가 촬영상과 미술상, 음악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내며 ‘에브리씽’에 이어 많은 트로피를 챙겼다. 이 작품은 세계 제1차대전 중 서부전선으로 투입된 고향 친구 4명이 전장에서 겪는 참혹함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표현해내 호평받았다.

다만 ‘서부 전선’과 함께 9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이시세린의 밴시’나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파벨만스’, 로큰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일대기를 그린 ‘엘비스’는 무관에 그쳤다.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를 다룬 다큐 ‘나발니’가 장편 다큐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적 색채를 잘 드러내지 않아 온 아카데미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세게 비난해온 미국 내 정서가 수상작 선정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애니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 6일째 100만 돌파
올해 개봉 영화 최단 기록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사진)이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3일 수입사 미디어캐슬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속’은 개봉 6일째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7일 차에 100만 관객을 넘어선 ‘교섭’보다 빠른 기록이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개봉일인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하며 흥행하고 있다.

영화는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고등학교 스즈메가 의자로 변해버린 청년과 함께 재난을 부르는 문을 닫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을 그렸다. ‘너의 이름은.’(2016), ‘초속5센티미터’(2007) 등을 연출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다. /연합뉴스

23년차 ‘아시아의 별’ 보아 “누군가의 청춘 장식 꾸듯”

코로나로 3년 늦은 20주년 기념 콘서트…팬들과 20년 시간여행

“누군가의 청춘에 제가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게 뿌듯합니다. 감사해요.”

가수 보아(사진)가 “여러분 다 같이 불러주세요!”라고 외치자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스틸 마이 넘버 원’(You Still My No.1)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발매 후 21년이나 지난 노래지만 마치 옛날 제 나운 히트곡인 듯 장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다. 흰 드레스를 입은 보아는 이를 지켜보며 뿌듯한 듯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열정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더 보아 : 뮤지컬리티’(THE BoA : Musicality)에서다.

보아는 지난 2000년 데뷔해 ‘넘버원’(No.1), ‘아틀란티스 소녀’, ‘마이네임’(My Name), ‘걸스온탑’(Girls On Top) 등의 메가 히트곡을 배출하며 K팝 대표 댄스 디바로 우뚝 섰다.

특히 2001년 일본에 진출해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 ‘발렌티’(VALENTI), ‘메리크리’ 등을 히트시키며 한국인 최초로 오리콘 앨범 차트 1위와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이 덕분에 ‘아시아의 별’이라는 호칭도 얻었다. 격한 안무에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을 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2008년에는 미국 진출도 시도해 이듬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하는 성과도 냈다.

그의 데뷔 20주년은 2020년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늦은 2023년에야 기념 콘서트를 열게 됐다.

보아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응원해주셔서 기운도 많이 얻게 됐다”며 “자리는 아니지만 감기 때문

에 한 달을 급증했다. 시원한 맥주를 너무 먹고 싶은데 마시지 못했다. 나는 술을 마시면 음식이 된다”고 너스레도 떨었다.

이날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보아가 활동한 긴 기간에 걸맞게 20대부터 30~40대까지 다양했다. 팬들은 보아를 상징하는 노란색 의상과 마스크를 쓰고 지난 20년을 되짚는 ‘시간 여행’에 함께했다.

‘아틀란티스 소녀’를 부를 때는 2층 객석 사이 사이를 비집고 장대를 한 바퀴 돌며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미국 데뷔곡 ‘잇 유 업’(Eat You Up)과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인기 크리스마스 캐럴로 자리 잡은 ‘메리크리’ 등 3개 국어를 오가는 세트리스트는 그의 폭넓은 지난 활약을 보여주는 듯했다.

양일간 열린 공연에는 선배 강타 외에 효연, 웬디, 슬기, 아이린, 수호, 시우민, 카리나, 윈터, 민호 등 많은 SM 후배가 찾아와 응원했다. /연합뉴스



학폭의혹 김현재 ‘픽타임’ 하차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JTBC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 ‘픽타임’ 출연자 김현재가 결국 하차했다.

‘픽타임’ 제작진은 “(이 문제는) 단시간 안에 명확하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김현재 군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6인조 보이그룹 블랙핑크 출신인 김현재는 최근 ‘픽타임’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 그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현재는 학교 폭력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글을 올린) A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힘들어하고 있을 가족, 주변인들을 위해서라도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